
저자 (Authors)	오은도
출처 (Source)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16 , 1993.12, 311-323(13 pages)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16 , 1993.12, 311-323(13 pages)
발행처 (Publisher)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The Research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97747
APA Style	오은도 (1993). 어린이·학생 교화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16, 311-323
이용정보 (Accessed)	성공회대학교 220.149.***.50 2021/05/04 21:2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어린이·학생 교화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

오 은 도*

목 차

I. 이끄는 말	1. 전담 교무의 육성과 임기 제 정착
II. 어린이, 학생 교화의 현실	2. 어린이, 학생 교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III. 교화 현장에서의 당면과제	3. 각 교구청 청·교·협의 활 성화 모색
1. 교화의 열의가 식지 않는 교화자	V. 연간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
2. 일반 교화와 둘 아닌 청 소년 교화	1. 어린이 교화 계획
3. 교무의 의식전환	2. 학생 교화 계획
4. 청소년의 심터가 있는 교 당 모색	VI. 맺는 말
IV. 청소년 교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	

I. 이끄는 말

교화 현장에서의 어린이, 학생(이하 청소년) 교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교화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미래의 교단은 청소년 교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교화의 발전에 미래의 교단을 걸고 있다. 그러기에 청소년 교화 비상상태임을 선포하고 교정원 교화부에서는 교단 100년을 향한 교화의 터잡기, 씨뿌리기, 가꾸기의 표어를 내걸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 교화에 교단 100년의 씨뿌리는데 총력을 다하자는 강한

* 원불교 정주교당 교무.

의지의 방침을 세웠다. 현재의 청소년 교화의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활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중요성을 인식하는 선까지는 변화가 온 것 같으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방법론을 찾지 못하여 망설이고 있다. 청소년 법회가 있는 교당에서는 교무 혼자의 역부족이 문제이고 법회를 보려는 의지는 있어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법회를 개설한 교당에서는 흥미 없어 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변화된 의식 속에 들어가서 흥미롭게 진행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어떻게 일원의 법음 속에서 삼대력의 힘을 얻어 지혜를 개발하고 복전을 개발시켜 줄 것인가?

또한 어느 정도 제도에 오른(법회 평균 출석 30명선) 교당에서는 1년 교화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이나 역시 이 상황에서도 조직적인 교화 방법론의 부재에 문제가 있다. 교무 혼자의 힘으로는 더 이상의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시이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현 청소년 교화 현실을 점검해 볼 때, 우선 교정 당국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조심스럽게 각자의 교화 현장에서의 교화자의 사명의식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청소년 법회가 스스로 자생력이 가능한 선은 어린이 30명, 학생 20명 정도이다. 1년 평균 출석이 이 정도에 단계에 오르는 문제는 교화자의 열의에 달려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정도의 선에서 법회가 쉬지 않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교화 현실에서의 문제이다.

본 고에서는 교화현장에서의 당면과제, 더 나아가 정책적 배려, 어느 정도 제도에 오른 정주교당 청소년 교화 1년 프로그램의 제시 순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전체를 본 상황을 아나기 때문에 때로는 본 글이 역설적일 수도 있으나 나름대로 제시하는 활성화 방안임을 미리 밝히며 앞으로

청소년 교화에 더욱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Ⅱ. 어린이, 학생 교화의 현실

교화부가 원기 77년부터 청소년 교화에 비상을 걸고 정책적인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현 상황(1년 반이 지남)에서의 청소년 교화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보고이다. 원기 78년 10월 호 교화현장에서 「청소년 교화 이렇게 풀자」에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오늘의 청소년 교화의 실상을 느낄 수 있다.

〈표 1〉 청소년 법회 결성 교당과 평균 출석

구 분	결성교당(개)	결 성(%)	평균출석(명)
어 린 이	295	72.1	16.2
학 생	189	46.2	14.3

〈표 2〉 청소년 법회 출석 현황

구 분	어 린 이	학 생
1 - 9명	121 교당	159 교당
10 - 19명	142 교당	79 교당
20 - 29명	52 교당	18 교당
30 - 39명	10 교당	9 교당
40 - 49명	5 교당	
50명 이상	4 교당	

이 글에서 표 1, 2를 제시하고 청소년 법회 평균 출석이 13.6명 임을 지적하고 있다. 본인이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린이는 1년 평균 출석 30명, 학생은 1년 평균 출석 20명 선이 되어야 청소년들 스스로의 흥미도 느끼며 자생력이 생기는데 우리의 교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

단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열의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다. 탐임 교무는 의두요목이 「어떻게 하면 청소년 범죄 평균 출석을 30명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필자는 이 단계에까지 올리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Ⅲ. 교화 현장에서의 당면과제

1. 교화의 열의가 식지 않는 교화자

각자의 마음이 불타지 않고는 결코 타인에게 감응도 위력도 줄 수 없다.

하늘을 뚫은 서원과 교화현장에서의 포부를 갖고 임한 현장! 누군가 꽃비 내리는 곳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화의 열의를 식게 하는 일들이 많다. 과다한 업무 속에서 준비없이 맞이한 범죄를 보고 느끼는 허탈감, 범죄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 텅 빈 법당, 끝없는 능력의 한계, 교무와의 세대차 등……. 새록새록한 기쁨의 순간도 많지만 우리의 열의를 식게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다가온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종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서원을 키우고 세워야한다. 「그대들의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는 서품 13장의 말씀을 받들면 용기가 솟구친다. 조금 안되는 경우가 온다 해도 넘어질 수 있겠는가? 계교 사랑없는 공인으로 내가 활불이 되어 일하고 고민하며 법신불 사운전에 매달리면 마음이 밝아지면서 길이 보이고 힘이 솟구치는 은혜를 받는다.

범죄 전에 청소년들의 가정으로 몇 통화의 전화 다이얼을 돌리는가 묻

고 싶다. 교회의 한 목회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회 신도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 50통의 전화를 건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는 법회 전에 적어도 30통의 전화는 해야 하지 않을까? 전화로 안되면 청소년이 있는 장소로 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먼저 나의 교화에 대한 열의가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식지 않도록 끝없는 충전이 필요하다.

2. 일반 교화와 둘 아닌 청소년 교화

교당의 교화 조직표를 보고 1년 교화계획과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거의 일반 교도 위주의 일변도로 짜여져 있다.

한 가정에서의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들의 교육비이다. 우리 교당을 한 가정으로 본다면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쓰여져야 할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있다. 물론 현장에 있는 본인도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른 것을 뒤로 미루고 청소년 교화를 우선 순위에 놓는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교도의 가정에 순교를 많이 간다. 그러나 청소년 교도의 가정에는 그들만을 위해서는 담임 교무가 순교를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물론 어려운 상황이다. 제일 고민이 많고 누군가와 상담을 하여 지도를 받고 싶어서 담임 교무를 찾아오면 교무는 업무에 시달려서 이야기 조차 나눌 시간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순교까지 갈 수 있겠는가?

각 교당에서 일반 교도 교화하듯 청소년들에게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준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일반 교도 교화 못지 않게 시간의 배려가 요청되며 항상 둘째 세계의 자리에서 청소년 위주로의 교화 전담이 필요하다.

3. 교무의 의식전환

본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첫 교화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며 그 다음으로 교당 가족이라고 말한다. 교당에는 교무와 부교무가 선후진으로서 서로 상호 협조하며 교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후진의 화합이 중요하기에 선진인 교무와 후진인 부교무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싶다. 먼저 교무는 일반 교화와 청소년 교화를 하나로 보고 청소년 교화의 현장에서 쉬이 좌절할 수 있는 부교무에게 끝없는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조금 서툴러도 그 싹을 꺾기 보다는 청소년 교화의 전담자로서의 독특한 위치를 인정해주며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어야 한다.

흔히 「우리 부교무는 어린이, 학생 밖에 몰라.」 하시는 말 속에는 교무 보좌의 소홀함과 일반 교도에 대한 무관심을 나무라는 듯하다. 그러나 그 일이 부교무에게는 먼저이기에 충분히 청소년 교화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적어도 청소년 법회가 있는 토요일만이라도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부교무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힘들어하며 전화 순교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교무가 전화기를 들고 청소년들이 법회에 나오도록 챙겨주면 청소년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청소년 교화에 있어서는 때로는 교무가 부직자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부교무의 의식전환이다. 부교무는 처음 현장에 임하여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오직 청소년이 나의 전부인 양 뛰다 보면 '선진모시는 도'도 잊게 된다. 상하좌우의 융화에 소홀하게 되어 고립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 교화도 교무와 먼저 의논하며 하나가 되어 교당 가족과의 협조속에서 이루어짐을 깊이 느끼며 조금 늦어지더라도 순서를 살피면서 위로 보좌하고 감정을 얻어서 하는 교화자세가 필요하다. 일반 교도의 자녀들이 청소년임을 잊지 말고 일반 교도 한 분 한 분에게 공을 들여서 교무와 하나로 만나지고 윤기가 상통되는 것이 지혜

있는 부교무의 역할이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도록까지 의견을 말씀드려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 교당 구조 속에서 일반 교화는 교무 담당, 청소년 교화는 부교무 담당의 한계선을 그어 놓으면 양쪽 교화 모두 실패한다고 본다. 서로가 담임이 되어서 한 울안에서 함께 교화해야 한다.

4. 청소년의 쉼터가 있는 교당의 모색

한 농촌 교당에서 평소에 잘 쓰이지 않는 소법당을 고쳐서 탁구대를 들여 놓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을 보았다. 또한 각 교당마다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개설하여 학구열에 불타는 청소년들에게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곳도 있다. 교당의 지하실을 활용하여 풍물을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와서 취미 활동을 하도록 개방해 놓은 교당도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교당에서 청소년 쉼터의 제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당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교당은 신성하고 엄숙한 곳이다. 그러기에 한창 뛰어야 하고 흥미로운 것을 찾아가서 열기를 발산해야 한 청소년들에게 교당은 먼 곳이 되어버렸다. 찾아가기 어려운 곳! 요즘의 입식구조에 적용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좌식구조의 법당에 1시간 가량 앉아서 법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번 가보고 나서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이제 부터라도 교당을 지을 때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개방하자. 어느 개척 교당에서 일주일에 한번 쓰는 법당을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는 책상과 의자를 놓고 공부방으로 개방하는 것을 보았다. 청소년들이 공부하다가 쉬고 싶으면 교당에 들어서면 그들의 대화 장소가 기다리고 있다. 마음 놓고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자. 항상 찾고 싶은 교당이 되도록 말이다.

IV. 청소년 교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

1. 전담 교무의 육성과 임기제 정착

처음 교화지에 부임했을 때 어린이, 학생 교화에 대한 나의 지식은 수 학기에 있었던 몇 번의 강습에 참가한 것과 어깨 너머로 교무의 교화하는 모습을 본 것이 전부였다. 예비교역자 시절에 실천 교화에 대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풍부한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한의사와 의사를 길러내듯 청소년 담임 교무도 전문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청소년 교화를 부교무 시절에 잠깐 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그 분야에 전문인이 되어 교무가 되어서도 전 생애를 청소년들을 위해 펼 수 있는 전문 교무가 나오도록 시간적 배려와 인사 배려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각 교당마다 청소년 교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 첫째는 담임 교무의 잦은 인사 이동이다. 적게는 1년, 많이 있다해도 3년을 넘기는 부교무가 드물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교화는 항상 처음이요, 새로운 일이다. 그러기에 깊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만다. 물론 교화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서 지도자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러한 교당이 몇이나 될까?

교정 당국에서는 교무처럼 부교무도 한곳에서 6년 동안 재직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된다고 본다. 나이들어서 인격을 갖춘 법사님들이 청소년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교해 주시는 멋진 모습을 그려 본다.

2. 어린이,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우리는 청소년 교화 침체의 극복 방법으로서 「교재개발, 법회 프로그램 개발, 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빠른 속도는 아니나

각 처에서 여기에 동참하여 열심히 연구 개발되고 있다. 대구 청·교·협의 움직임, 서울 청·교·협의 프로그램 개발 등이 돋보이고 있다.

원기 77년(1992년) 8월호 원광에서 「학생 교화 이렇게 풀어가자」 특집에 발표한 나상호 교무의 글에서 교화 프로그램 개발을 세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교재개발로 풀어나가는 학생 교화, 법회 프로그램 개발로 풀어나가는 학생 교화, 훈련 프로그램 개발로 풀어나가는 학생 교화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이제는 이 정도의 행보로는 정보화 시대의 청소년 교화의 일대 변혁을 꾀할 수 없다고 보고 그 화급함을 당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착수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에서 뛰다 보면 교재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교재가 현장에 있는 우리 담당자에게 나와야만이 살아있는 교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몇 안되는 교화 당국에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것 같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좋은 교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교화부로 보내어져 엮여지고 다시 현장으로 보급되는 순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에서 고민하며 열심히 뛰며 교화하는 교무가 있을 때 교재와 프로그램도 풍성해지는 것이다. 본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교재가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은 씨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도 같다.

논자는 현장에서의 직접 뛰는 교무에 의해 만들어진 교재와 프로그램을 보고 연구하며 교화하는 교무의 성공한 프로그램을 다시 엮어서 전체와 공유하려는 마음을 가진 교화자가 많이 나올 때 이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3. 교구 청·교·협의 활성화 모색

서울 청·교·협에서 발간한 「원기 78년 어린이, 학생 법회 운영안」을 받아 보고 ‘바로 이것이다’ 하며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실제 현장에서 고민하며 뛰고 있는 서울 청·교·협 교무 회원 일동이 한마음이 되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함께 지혜를 모아 퍼내게 되었다. 청·교·협 활동이 시작된 것은 청소년 교화를 담당한 교무들이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성공 사례를 나눔으로 해서 교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각 교당의 일 속에 묶여서 한 달에 한 번도 공동의 시간을 내어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 여기에서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기대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각 교당일도 우선이나, 청소년 교화의 어려움을 모색하기 위해서 교구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인준해 준 단체이면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청·교·협을 운영하는 교무들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단지 천목의 차원을 넘어서서 계획적인 연구 발표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공유되어지는 청·교·협으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교구장이나 교무들의 철저한 조언을 듣고 감정을 받으면서 함께 모시고 하는 청·교·협이 되어 선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실속있게 움직여져야 한다.

서울 청·교·협에서 만든 어린이, 학생 법회 운영안이 각 교구 여건에 맞는 제2의 운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V. 연간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

각 교당 교화 프로그램의 장단기 계획이 1년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계획에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수립되어서 주일마다 일회적인 법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주지역 여건에 맞게 구성된 1년 교화 계획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가지 지적하는 것은 1년동안의 거창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 하나

의 계획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여 한 행사가 끝나고 나서 교화자 스스로가 회열심과 만족감을 느낄 정도가 되어질때 나날이 발전하는 교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 어린이 교화 계획

1) 어린이 연중 계획

1월	겨울 한문교실, 겨울 동선, 승급법회
2월	회장단 훈련, 교리퀴즈대회
3월	교리 암송 대회
4월	교구 합동 대법회, 자선기관 방문
5월	샘고을 어린이 민속 큰 잔치
6월	성지순례
7월	여름훈련
8월	여름한문교실
9월	교리강연대회
10월	체육대회
11월	어린이 예술제, 자선 기관 방문
12월	정기총회

2) 어린이 월중 법회운영 계획

첫째 주	마음을 보는 날(선법회)	월초기도, 법어명상, 염불, 득도식
둘째 주	가르침을 받는 날(교리법회)	만화로 보는 대중경, 교화현장활용
셋째 주	이야기 하는 날(회화법회)	교리법회 내용으로 전체회화
넷째 주	축하하는 날(축하법회)	생일축하, 월말결산시상

2. 학생 교화 계획

1) 학생회 연중 계획

1월	졸업법회, 회장단 훈련
2월	겨울동선, 환영법회
3월	교구 합동 대법회 준비
4월	경축한마당
5월	어린이 학생 합동 법회
6월	교구 명랑 운동회
7월	전국 중학생 훈련
8월	교구 고등학생 훈련
9월	연화의 밤
10월	산악 동반 극기 훈련
11월	교구 교리 퀴즈 대회
12월	정기총회, 내장산 회지 발간

2) 학생회 월중 법회 운영 계획

첫째 주	기도법회	세째 주	회화법회
둘째 주	설교법회	네째 주	설교법회

- ① 법어합독:전체 1년동안 개교의 동기만 주법회 때마다 합독한다.
- ② 법어봉독:임원(각 단장 중앙)들이 돌아가면서 1년동안 인과품 봉독한다.
- ③ 단모임 이야기 시간:요훈품으로 1년동안 한다.
- ④ 월초 기도법회때 감상담 발표는 단별로 1명씩 한다.
(각 단장은 4주 법회후 발표할 법우를 정한다.)
- ⑤ 회화법회는 2주 법회때 회장이 주제를 정하여 발표할 단도 정해준다.

VI. 맺는 말

어린이 학생교도는 교무의 깊은 관심 속에서 자라난다.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힘을 밀어 주어야 한다. 일반법회 설교시간에 청소년기의 종교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부교무가 어린이 학생에게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시간의 배려가 필요하다. 담임교무도 「우리교당은 어린이 학생이 적어서」라고 포기하기 보다는 초기교단때 9인 단원으로 부터 출발하여 오늘의 원불교가 되었듯이, 모두를 단장으로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내일의 교단과 국가를 짊어질 역군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